



應付馬疋如無
此符「檀便給
驛各驛官吏
不行執法循情
應付」者俱各
治以重罪宜令
準此

洪武二十三年

以上과 같다. 本

符標는 바탕을綾織으로 짜고 文字나 馬匹만은平織으로 짜 있다. 周圍에는 幅四·五cm의 雲文帶를 둘러는데 이帶의 外廓線과 內廓線은 靑, 黃, 분홍色의 三色을 三重으로 둘러고 그 안에 淡褐, 靑, 분홍, 綠의 各色으로 雲文을 수놓고

上下에 二匹, 左右에 各 一匹의 龍이 淡褐色으로 수놓아져 있다. 文字는 黃色으로 짜고 그 위에 또 黑色으로 짠 馬匹은 安장을 엮고 疾走하는 形態인데 靑, 靑, 綠, 黑, 분홍의 各色으로 짜져 있다. 年月日 옆에는 「達字參拾號」라 墨書되었고 그 위에 一一·九×二二·六cm의 陽字「制誥之寶」印이 찍혀 있다.

以上은 이 符標의 大綱인데 比단의 質로 보나 樣으로 보나 文脈으로 보나 中國産임은 틀림없다. 洪武二十三年은 高麗 恭讓王二年(西紀 一三九〇)으로 高麗가 亡하기 二年前의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昌德宮에

保管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王家를 通해서 傳해지지 않았나 짐작된다. 李朝時代馬牌에도 반드시「〇字」의 表示가 있는데 여기도「達字」의 表示가 있다. 「參拾號」의 數가 있으니 같은「達字」標에도 號數가 있었던 듯하다. 또 말이 二匹만 그려 있는데 이것도 말의 數에 따라 어떠한 區分이 있었던 듯도 하다. 織物의 色彩는 多少 褪色된 듯도 하나 아직도 잘 남아 있으며 織造技術도 相當히 發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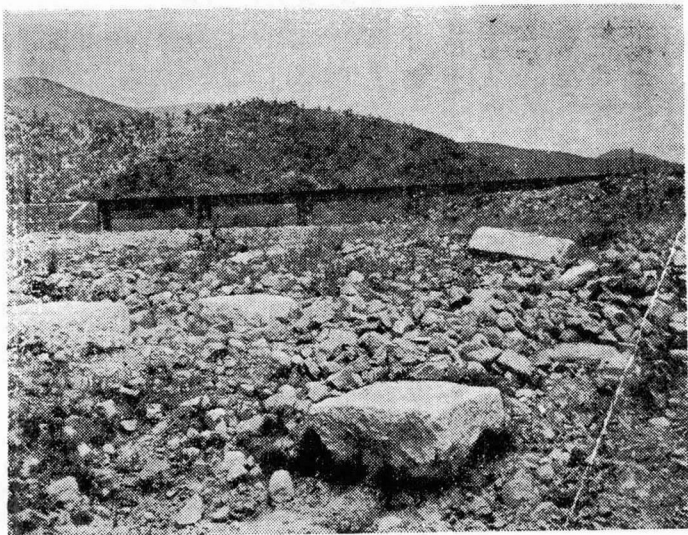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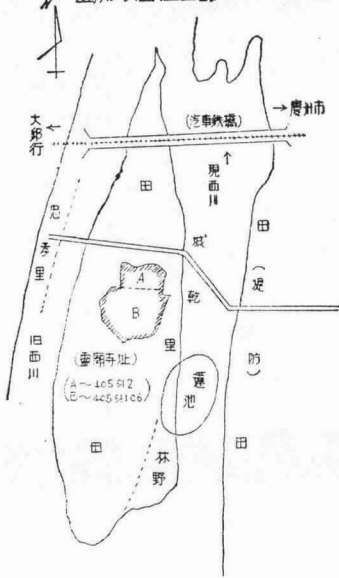
新羅 靈廟寺址의 推定

洪 思 俊

지난 五月十一日 城乾里 西川 河心에서 瓦當類와 礎石이 露出된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가본 結果 果然 舊西川이 松花山기슭을 돌아 나갔던 河床과 現西川이 흐르는 그 中間地點에서 縱二十六m 橫二十七m의 區域內에 金堂址로 認定되는 四方地臺石과 四角形礎石이며 木塔址로 比定할 수 있는 建物址를 알게 되었다. 이 곳에서 出土되는 瓦類는 主로 高麗時代것과 李朝時代의 불맞은 것들이 多數보이며 無文磚破片도 間或發見되었으나 아직까지 新羅時代瓦當은 보지 못하였다. 隣近部落人의 말에 依하면 이곳 寺址一帶를 조장(操場)이라 하며 金堂址로 認定되는 곳을 대사(大寺)라 한다. 그리고 寺址에서 南南東一五〇m 程度距離의 現西川一部에 연동빙(蓮池)이 있었다 한다. 이 연동빙周圍에는 느티나무(槐木)가 한아름되는 것들이 四十年前까지 있었고 그 연동(蓮塘)이 있던 곳도 住民은 指摘하는 것이다. 李朝時代에는 慶州의 營將이 있던 곳을 영말(營村)이라 하여 城乾里 西川東의 部落이 되었다 하며 罪人을 이 寺址에서 死刑하였다고 하는데 人家와 떨어져 있는 關係로 그곳에서 斬首하였는지 未詳하다.

日政以後 靈廟寺址를 推定하기를 金山齋附近 일것이다 하는 論議가 있었고 確實한 地點을 아지 못하였다 한다. ① 지난 一九五九年 『사라號誌

靈廟寺址位置圖(慶州府城乾里)



風』에 上記의 「五장」一帶가 洪水에 씻겨 내려간後 지금 寺址의 柱礎石들과 地臺石들이 들어났다 한다.

이 寺址는 慶州市 城乾里四〇五의 一〇 六番地와(木塔址)同 里四〇五의 二(金堂 址)番地로前者는 田 五〇一坪에 現所有者 西部里 李璋雨氏 와後者는 田 四六五 坪에 現所有者 城乾 里 河永壽氏로總坪 九六六坪인데 지금 人工을 加한 石材는

田 四〇五의 二 番地에 多數集 合하여서 土地 所有者가 他人 에게 石材를 賣 買하였다는 風 聞을 寺址附近 耕作者에게서 들었다. 關係 當局에서는 時 急히 이에 對

한 措置가 促求되어진다.

그러면 靈廟寺址로 推定될根據로 무엇이있을까 아래에 적어보고자 한 다.

(A) 一、東國輿地勝覽 慶州佛宇條 靈妙寺에 「在府西五里 唐貞觀六年 新羅 善德王建、殿宇三層、體制殊異、羅時殿宇非一、而他皆頽毀、獨此宛 然如昨、諺傳寺址 本大澤、豆豆里之衆、一夜填之、遂建此殿」이라 하 여 큰못(池)을 두개비들이 하루밤사이 에 메우고 이 寺刹을 지었다 한다.

二、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에 『於靈廟寺王門池 冬月象蛙集鳴三四 日……』라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靈廟寺에는 沼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現 西川의 城乾里便에 蓮塘(蓮을 번)이 있다는 것이 文獻과 符合된다.

(B) 現寺址에는 四角柱礎石이 많다. 四角礎石은 慶州 皇龍寺址與輪寺址 等 新羅統一以前の 寺址에서 볼 수 있는 礎石들이다.

(C) 이 寺址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高麗와 李朝時代의 瓦當이 많다. 靈 廟寺建築年代는 비록 新羅統一前이나 新羅統一後 高麗時代 를經由하여 李朝初葉 世宗大王때 金時習先生의 四遊錄 『登靈廟寺浮屠 (唯一木浮屠獨存創已九百餘年)는 그때까지 三層殿宇가 있음을 말한 것 이며 東國輿地勝覽에 『天順四年庚辰世祖五年』(西紀一四六〇年)에 奉 德寺梵鐘을 靈廟寺에 移懸한 事由가 있다. 이와같이 八百餘年間的 長 久한 時日이 經過한데서 新羅瓦當은 地表에 稀少한 것이요 重修改修에 서오는 後代의 瓦當이 많을 것은 또한 妥當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 고 이 寺址에서 나오는 불맞은 瓦當이 많은데 靈廟寺는 火災에 消失 되어서 寺址에 남았던 奉德寺梵鐘을 李朝中宗初年(元年—二年)에 當 時 慶州府尹芮椿年氏가 鳳凰臺南門外에 鍾閣을 新築하고 옮겨달았다 는 것으로 보아서 靈廟寺는 李朝에 와서 完全消失한後 다시 復舊못하 였던 것이다. 이 火災에서 李朝瓦片이 불맞은 것을 알 수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文獻記錄과 現存의 物的證據나 口傳이 서로 符合되 는 것으로 보아서 俗稱 大寺는 靈廟寺址임을 推定하게 된다.

靈廟寺는 羅代七大伽藍(三國史記職官上七寺成典)의 하나로^③서 沼澤을 埋立하고 三層殿宇(金堂)와 左右經樓(經庫와 鐘樓)에 南門과 廓廡等 具備된 巨刹임^④을 알았고 金堂內에 安置하였던 佛像은 丈六 三尊佛이 었으며 靈廟寺頌과 同一한 釋良志의 所作임을 三國遺事(卷三靈妙寺丈六條와 卷四良志使錫條)에 傳하여준다. 앞으로 寺址整理와 保護策이 時急히 要望되며 西川堤防에 使用된 石燈臺石破片도 一定한 場所에 集合시켜서 옛날의 靈廟寺莊殿을 髣髴케 하는 施策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아진다.

(五, 一三三)

註

- ① 諸鹿央雄 「新羅寺蹟考」 (一九一六油印物)에는 靈妙寺址를 所在 不詳이라 하면서 「本寺址ニ就テハ未夕確說ナキモ城乾里所在ノ寺 址或ハ之ニ相當セザルカ」라 하였는데 城乾里의 「寺名不詳廢寺址」 三個所中の 하나로서 「製紙傳習所ノ西數丁田畝ノ間ニアリ現ニ礎 石ヲ存ス」라 한 것이 있다. 또 大坂金太郎 「慶州新羅廢寺址의 寺名 推定に就て」(『朝鮮』一九七, 一九三一年七月稿)에는 靈妙寺에 對 한 論及이 아니 보인다.
- ② 前舉한 東國輿地勝覽 慶州靈妙寺條參照
- ③ 三國遺事卷三 阿道基羅條에 京都內七處伽藍之墟를 들고 「五日沙 川尾今靈妙寺。善德王乙未始開」라 보인다.
- ④ 三國遺事卷二 孝恭王條 卷四 二惠同廢條

公州邑 玉龍洞 古墳出土의 遺物

金 永 培

一、發見의 動機

一九六二年 四月 二十七日 公州邑 玉龍洞 山二十의 一番地下麓에 山田 이 있어 (所有者 黃興龍)藥圃로서 耕作되고 있는데 近者 擴張開墾作業中 에 偶然히 古墳이 發見되었다.

二、出土遺物의 接受와 事後整理

第三卷 第六號 通卷二千三號

(1) 四月二十九日

古墳이 發掘되었다는 情報를 얻어 出土遺物의 種類와 數量을 把握하고 現地에 急遽出張한즉 多 幸히도 遺物全部가 玉龍洞洞長에게 保管中임을 알고 即時 洞長을 訪問하여 調査한즉 入手한 情報와 相違가 없으므로 保管中인 遺物을 接受하는 同時에 現場을 豫備調査하였다. (한가지 아슬아슬한 것은 遺物을 四月二十九日 저녁에 賣却할 豫定이었다는 것이다)

(2) 四月三十日 人

夫를 使役하여 古墳의 整理와 調査에 着手하였다. 함부로 發掘되어 攪亂된 古墳

을 整理하고 發掘時의 人夫들에게 原狀態를 물어 檢討하여 實測 撮影을 完了하였다. 古墳은 月城山의 西쪽으로 뻗은 枝脈下麓에 거의 南面한 石室古墳으로서 公州宋山里에 多數 遺存한 穹窿狀天井을 가진 百濟時代 石室古墳構造와 같으나 規模는 若干 작다. 美道와 玄室로 區分되는 바 天

